

중국 현지 의료소비자의 특성 및 의료기관 선택 연구

김지만^{*,**}, 이상규^{*,***}, 신재용^{****}, 송주영^{*}, 이예슬^{*****}, 김태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medical care consumers and choice of medical care providers

Ji Man Kim^{*,**}, Sang Gyu Lee^{*,***}, Jaeyong Shin^{****}, Joo Young Song^{*}, Ye Seol Lee^{*****},
Tae Hyun Kim^{*,***†}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Health Foundation, *Institute of Health Services Research,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Purposes: This study identifies local Chinese consumers' standard for selecting medical care provider and their standard for choosing medical staff, as well as their expectations and concerns regarding Korean medical care providers.

Methodology: A survey was conducted in China, to identify Chinese medical care consumers' standards for selecting a medical provider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use of general hospitals. A total of 1,500 people across three cities, between the ages 18 and 60 participated in the survey. Moreover, a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affect Chinese medical care consumers' use of general hospitals.

Findings: A total of 75.5 percent respondents chose general hospitals as their most frequently-used medical provider. Those who have health insurance, visit general hospitals as outpatients or are hospitalized more frequently than those who do not have a health insurance. Furthermore, those who have private insurance visit general hospitals as outpatients or are hospitalized more frequently than those who are not signed up for private insurance. Major standards for selecting a hospital included: the doctor's skills, word-of-mouth regarding the hospital, and distance to the hospital from the respondents' home. Standards for choosing medical personnel included word-of-mouth regarding the medical team, recommendations from family members or acquaintances, and medical team's notoriety. Friends and neighbors, family members, television and other media outlets were the channels for acquiring information on a hospital. It was found that Chinese people mostly visit the cardiovascular department of Korean hospitals for treatment. For using Korean hospitals in China, the majority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were concerned about the cost.

Practical Implications: Backed by highly skilled medical experts and cutting-edge technology, Korean medical care providers are attempting to enter China's medical care market. To succeed in China's medical care market, it is vital to conduct a clear and precise analysis.

Key words: health service, China, healthcare customer

* 투고일자 : 2018년 01월 19일, 수정일자 : 2018년 02월 26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03월 12일

† 교신저자 : 김태현, 연세대학교, Tel.: 02-2228-1521, Fax: 02-392-7734, E-mail: thkim@yuhs.ac
이 연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연구비(6-2017-0123)를 지원 받아 수행되었음.

I. 서 론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은 2014년 누적 137건, 2015년 141건, 2016년 15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진출국가도 2014년 17개국에서 2016년 20개국으로 확대되었다[1]. 국가별 진출현황은 중국 59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 40건, 베트남 9건, 카자흐스탄과 UAE 7건, 몽골과 인도네시아 6건 등의 진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많은 의료기관들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중국의 의료 시장 성장과 개방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의료기관은 1990년대까지 대부분 공공병원이었으며, 민영 병원은 소규모 병원을 허용하는 소극적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1997년 이후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하는 등의 정책적 변화와 대규모 투자유치 등으로 민영병원의 대형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제1-3차 보건의료개혁과 제 12, 13차 5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의 의료진출을 허용 및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민영병원의 부실 공립병원 인수도 장려하고 있다. 또한 2013년 “건강서비스업 발전촉진에 관한 일련의 의견”을 발표하면서 민영병원 육성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진입장벽 완화, 지역 민영병원의 육성,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정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2]. 이러한 정책변화의 영향으로 중국 의료기관은 1990년대까지 대부분 공공병원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민영병원이 증가하여 2005년 3,220개에서 2010년 7,068개, 2013년 11,313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민영병원의 증가로 전체 병원 중, 민영병원의 비중도 2013년 46%에 이르고 있다[3].

2016년 3월 발표된 제13차 5개년 발전계획에서 의료분야는 질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는 동시에 스마트 헬스케어, 유전자 치료, 신약개발 등 새로운 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4,5]. 이로 인해 의료산업과 관련된 외국 자본의 유치 및 기업의 참여와 병원 간, 의료 관련 기업 간의 인수합병이 증가하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파트너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개혁 추진과 전국민 의료서비스 보장, 중대질환 및 만성질환의 예방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민영병원 설립을 장려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다양화 및 고급화 되어가는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공공병원을 개선하여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

다[5]. 또한 전 국민 의료보장 체계 달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 체계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도시근로자의료보험, 도시주민의료보험,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주민의료보험과 신형농촌합작의료보험은 통합운동을 추진하여 공공의료보장 보험가입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4]. 이와 함께 사회보험의 재정안정과 보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에 해당하는 상업보험의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5].

이와 더불어 중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은 1981-1990년 9.8%, 1991-2000년 10.6%, 2001-2010년 10.7%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1인당 의료지출도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6,7]. 의료기관의 진료횟수는 연평균 8.9% 증가하였으며, 소득수준이 높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고급 의료서비스와 특수클리닉, 재활의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8].

중국 진출 한국 의료기관의 규모는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9]. 진료과목도 피부 및 성형외과, 치과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1]. 이로 인해 매출부진, 파트너와의 갈등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고, 일부 병원은 철수하기도 하였다[9]. 이와 같이 중국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성공사례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가시적인 진출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장 및 정책, 법적인 정보 파악이 필요하다. 진출 의료기관들은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진출지역 및 규모 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중국 진출 시,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 소비자의 의료기관 및 의료진 선택기준,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기대 및 우려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중국 의료소비자들의 종합병원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의료기관 선택기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국 동부의 인구 500만명 이